

http://www.dongbukilbo.com

2020-03-18 10:02:44 (수)

## 도봉구 꿈드림 청소년, 대학 진학의 꿈 이뤄 학교 밖 청소년 6명 꿈드림에서 미래설계

기사입력(2020-03-15 14:48)



▲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봉구청소년지원센터 스마트교실을 통해 마침내 대학진학의 꿈을 이루었다.

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.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. 창동문화체육센터(노해로 69길 132) 1층에 소재한 도봉구청소년지원센터(센터장 왕영선) 꿈드림에서는 스마트교실 운영을 통해서 교육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6명이 2020년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도봉구 꿈드림은 도봉구 내 학교 밖 청소년 중, 학업 복귀 및 대학 진학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과 인터넷강의를 지원하는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. 이와 같은 교육 지원을 통해 도봉구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제 1,2회 검정고시 시험에 총 41명을 합격시켰다.

또한,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입시 수시·수능에 합격해 마침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었다. 합격한 청소년은 박○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, 김○석 한서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, 박○섭 동양미래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, 이○령 강릉영동대학교 산림복지학부, 임○은 수원대학교 피아노과, 장○호 대림대학교 글로벌조리·제과학부의 신입생이 되어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있다.

대학에 합격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중·고등학교를 자퇴한 후, 뚜렷한 목표 없이 명확한 실행방법을 알지 못해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. 한 합격생은 “도봉구 꿈드림 선생님들과의 진로 상담을 통해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다.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꿈드림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, 그리고

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만난 멘토선생님의 지도를 통해 잘 이겨낼 수 있었다. 합격의 결과를 얻어 뿌듯하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검정고시에 합격한 또 다른 청소년은 “틀에 박힌 학교공부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.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꿈드림의 프로그램을 꼭 추천해 주고 싶다”며 기뻐했다.

왕영선 센터장은 “학교 밖 청소년 6명이 3월부터 대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. 이중에 가까운 서울에 합격한 친구도 1명 있다. 한 명 한 명 모두 다 자랑스럽다”고 말하면서, “보통 학교 밖이라면 문제 청소년으로 치부하기 십상이지만, 이렇게 멋지게 꿈드림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한 친구들을 보면 대견하다. 음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”면서 자랑스러워했다.

도봉구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 또는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만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운영하고 있다.

뿐만 아니라, 센터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기간 숙려기회를 부여하고,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해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.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돕는 스마트교실 프로그램은 2020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며, 그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·교육·직업체험·자격증취득·건강검진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.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화(02-6956-4505)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. (정나연 기자 dobongnews@naver.com)

\* 본 기사의 저작권은 [동북일보]에 있습니다.

[프린트] [닫기]